

국민의힘 초선들 “5·18은 민주주의 상징...쇄신 보여주겠다”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열사묘역 묘비 닦기

“광주정신, 통합 씨앗 돼야”...지역현안 입장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8일 앞둔 10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오월영령 앞에서 “광주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김형동·박형수·서정숙·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초선의원과 김재섭(서울도봉갑)·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

주묘지를 참배했다.

의원들은 오월영령 앞에 헌화·분향 한 뒤 머리를 숙이며 광주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또 의원들은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로 이동해 빨간 조끼를 입고 묘비를 닦았다.

의원들은 이어 입장문을 통해 “1980년 5월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선 광주시민의 항쟁은 민주화에 대한 시대의 열망을 담은 것이었다”며 “광주 정신은 1987년 6월 민주화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 정신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에 있어서 모두의 것이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광주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며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사법적 평가도 다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광주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또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이며 어

는 곳보다도 정치 의식이 높은 곳이다”며 “꼭 5·18이 아니더라도 시간될 때마다 자주 방문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오늘 광주와 전남도민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당 지도부와 선배의원들께 전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국회에서의 상생과 화합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참배에 앞서 의원들은 방명록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영령들이시여 추구하셨던 애국, 공정, 소통, 통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한 뒤 열사의 묘비를 닦고 있다. 참배에는 김미애·김형동·박형수·서정숙·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의원과 김재섭(서울 도봉갑)·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빛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서선욱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낙연 “불안의 시대...포용정부·혁신국가가 국민 지켜야”

“국민소득 3만달러, 복지는 2만달러 수준...빈틈 채워야”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차기 정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불안의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먼저 ‘신복지’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살지만 복지는 2만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제는 복지도 3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축인 ‘선도국

가’ 관련해서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고,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재, 기술, 제도 혁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인재 혁신과 관련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文대통령 MB·朴·이재용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 고려 판단”

“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또 고려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영란 순천시의회 ‘(가칭)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 방향 제시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이 최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2021년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문화도시

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시점에 시에서 검토 중인 가칭 ‘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14일에 열리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와 연계된 후속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